



기독교대한감리회

청파교회

교회세운날 1908.5.1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 하는 공동체입니다

주 일 낮 예 배 순 서

【 창조절 5주 】

인도 1부 : 이범석 목사
2부 : 이재훈 목사

- 전 주 반주자
- 임재의 기원 오소서 평화의 임금 다 함께
- 예배로의 부름 담임목사
- ▲ 경배의 찬송 70. 피난처 있으니 다 함께
- ▲ 공동기도 다 함께

자비하신 하나님, 결실의 계절인 가을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농부들은 본격적인 가을걷이를 시작했습니다. 봄부터 열심히 씨를 뿌리고 가꾸어 온 열매를 거둡니다. 주님, 우리도 일상이라는 논밭에서 열심히 땀을 흘려 일하게 하시고, 주님이 허락하신 때에 감사와 기쁨의 열매를 거두게 해 주십시오.

주님, 이 땅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왕 되심을 드러내야 할 교회가 돈과 권력이 왕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의 가르침을 세상에 전해야 하는 교회가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예수 잘 믿으세요'라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부패한 예루살렘 성전에 채찍을 내려치셨던 주님, 그릇된 길을 가고 있는 한국 교회를 꾸짖어 주시고 새롭게 고쳐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 참회의 침묵기도 다 함께
- ▲ 위로의 말씀 사 60:20 인도자
- ▲ 교 독 문 37. 시편 91편 다 함께
- ▲ 영 광 송 2. 찬양 성부 성자 성령 다 함께
- 2부 대표기도 장원호 장로
- 2부 응 답 송 찬양대
- 2부 찬 양 406. 곤한 내 영혼 다 함께
- ▲ 성경봉독 사 58:6-12 1부: 인도자/2부: 조두희 집사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봉 독 자
다 합 께

찬 양 I. 낮은 곳으로 참빛찬양대
 II. 누군가 기도하네 청파찬양대

말 씬 혼돈과 공허와 어둠에 맞서 김재홍 목사
 거둬기도 다 함께

찬 양 461. 십자가를 질 수 있나 다 함께

▲ 봉 헌 317. 내 주 예수 주신 은혜(1·5절) 다 함께

▲ 봉헌기도 김기석 목사

공동체 소식 김기석 목사

▲ 평화의 인사 다 함께

▲ 보냄의 말씀 다 함께

인 도 자 :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
 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혼돈과 공허와 어둠에 주눅 들거나
 짓눌리지 마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맞서십시오. 자비와 공의를
 행하십시오. 주님의 영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통해 이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실 것입니다.

다 함 께 : 아멘. 어둠 속에서 새로운 빛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
 세상의 어둠에 대해서 불평만 하거나 모른 체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 맞서겠습니다. 불의에 저항하고 어려운
 이를 돌보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 이 세상을 새롭게 창조
 해 주십시오. 아멘.

▲ 찬 양 635. 주의 기도 다 함께

▲ 축 복 김기석 목사

주일 오후 집회

수요일 집회

선교회

낮집회 / 설교 : 김기석 목사

저녁집회 / 떼제찬양과 기도회

시편 30편 - 슬픔 뒤에 기쁨이 先悲後喜

- 오경웅 박사의 번역에 송대선 목사의 해설

心感雅璋 扶持小子 未令敵人 揚眉吐氣

심감아위 부지소자 미령적인 양미토기

曩者有患 呼籲於爾 爾應我求 吾病以治 肉我白骨 生我於死

낭자유환 호유어이 이응아구 오병이치 육아백골 생아어사

蒙主煦育 可不頌美 勗哉諸聖 讚主莫已 聖怒一時 茲恩永世 長夜悲泣 拂曉乃喜

몽주후육 가불송미 옥재제성 찬주막이 성노일시 자은영세 장야비읍 불효내희

昔處康樂 自謂安固 主爲磐石 寧用後顧 忽掩慈顏 心生憂怖 哀哀求主 聽我仰訴

석처강락 자위안고 주위반석 영용후고 흠엄자안 심생우포 애애구주 청아양소

小子之血 於主何補 徬轉溝壑 化爲塵土 塵土何知 寧能讚主 求主垂憐 加以神助

소자지혈 어주하보 상전구학 화위진토 진토하지 영능찬주 구주수련 가이신조

主聞吾禱 化泣爲舞 解我麻依 被以歡緒 感銘靈府 焉能默默 稱謝洪恩 永世不息

주문오도 화읍위무 해아마의 피이환서 감명령부 언능묵묵 칭사홍은 영세불식

어리석은 인생에 곁 주시는 야훼께 온맘으로 감사를 드리나이다. 주님께선 적들로 하여금 의기양양치 못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전에 병 가운데 호소하였더니 야웨 응답하사 고쳐주셨나이다. 뼈마디만 남은 내게 살을 입혀 주시고 죽음에서 삶으로 돌리셨나이다. 주님의 후의를 입었사오니 어찌 야훼 주님을 찬송치 않으랴? 신실한 이들은 힘써야할지니 주님 향한 찬송 그치지 말지라. 거룩한 분노는 한순간이요 자비로우신 은혜는 영원하도다. 긴 밤 슬픈 눈물 범벅이라도 새벽에는 기쁨이 이르리로다. 오래 전 평안하고 즐거웠을 제 '진실로 내 삶이 견고하다' 말한 것은 야훼께서 나의 반석이셨기에 도무지 돌아보아 걱정할 것 없었음인데 홀연 자비의 당신 얼굴 감추시니 근심과 두려움에 잡혔나이다. 슬픔 속에서 주께 구하며

우러러 토로하는 기도 들어주소서. 제 죽음이 주님께 무슨 보탬이 되겠습니까? 죽음의 구렁에서 텅굴다 진토가 되면 그따위가 뭘 알아 야훼 찬양하리이까? 주님 자비 베푸시고 도움 허락하소서. 내 기도 주께서 들어주셔서 눈물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슬픔의 옷 벗기시고 기쁨의 띠 띠우셨네. 내 영혼이 젖어든 야훼 주님의 은총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으랴? 크고도 놀라운 그 은혜 감사하며 영원토록 주의 사랑 찬미하리라.

슬픔에 휩싸인 밤은 한없이 길다. 도저히 끝날 것 같지 않은 어둠이다. 그러나 영원할 것 같은 밤도 끝내 끝이 난다. 새벽 빛, 여명과 함께 하느님의 위로와 자비가 임하신다. 거룩한 분노는 한순간일 뿐 그분의 자비는 영원하시다. 슬픔의 눈물은 끝내 변하여 기쁨의 춤이 되게 하신다. 어려운 것은 그때가 정녕 하느님께 속한 것이기에 그 가운데 겸허히 기다리며 낮아지는 것을 배우는 것이다.

그렇기에 신앙은 기다림을 통해 영글어 간다. 기다림은 쓸모없는 시간이 결코 아니다. 한 영혼이 익어가는 시간이다. 유교에 있어서 시중時中이라는 삶의 태도가 있다. 적절한 균형감과 때에 알맞게 살아가는 바른 식별 능력이다. 여기에는 반드시 때를 기다리는 인내가 포함된다. 기독교에서도 식별은 신앙의 중요한 지평이다. 스스로 언제까지라고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다. 그건 화내고 원망하기 위해 베푸는 것뿐이다.

제목이 선비후희先悲後喜이다. 본문의 내용과는 다른 맥락이지만 이 글을 읽는 유학자라면 떠올릴 만한 문장이 있다. 송대 범중엄의 『악양루기』에 ‘천하 사람들 앞서서 근심하고 세상 사람들 모두 즐거워한 뒤에 즐거워하라’는 구절이다. 줄여서 선우후희先憂後喜의 성어로 쓰인다. 모름지기 사람이 되고자 하는 이의 도리이며 바른 뜻을 지닌 이의 마음자세이다.

- 오경웅 지음, 송대선 역 「시편사색」(꽃자리) 중에서

김수우 씨

이무열

뽕소니차에 치인 사흘 동안
중국집 배달부가 홀로 죽어갔다

어릴 때 고아원을 뛰쳐나온 탓에
날 무시하느냐!
세상에 불 지르려다
징역 살고 몇 차례 소년원에도 다녀온 사람

한 달 칠십만 원 벌어
고시원 드난살이 짝짝했지만
매달 십만 원을 불우한 아이들 후원하고
보내온 아이들 사진과 감사 편지가
유일한 보람이자 희망이었던 지상에서의 삶

55킬로그램 체중에 키는 158센티미터
장기 기증 약속과
죽어서야 보험금 사천만 원을 후원회에 남긴 철가방 아저씨
한 평 반 창문도 없는 쪽방 영정사진 속에서

선넛의 김수우 씨 그가 웃는다

헌금 영수기

십일조 및 월정헌금

김경혜 김남중 오복순 김성우 박유경 김승현 김수진a김영옥 김영희 김은옥 김은진
김정규 이종옥 김정수 정자현 김종락 박영신 김종성b서이순 김지은 김지현 김진우
임미진 김필순 나희덕 노연정 박경원 박기원 이미영 박병구 박영희 박인혁 고숙이
백원선 서수진 성지현 손연우 송인선 신영신 신영옥 안길상 이형숙 오미숙 오자영
오재형 임고운 유수진 유지은 윤미경 윤성종 김윤정 윤수연 윤수진 윤정덕 구성실
이건호a김보민 이광섭 김수연 이민관 송용화 이수자 이유진a이은주 이재삼 전정현
이재우 배이화 이준림 임성택 홍순위 임승동 백혜숙 장현희 조치형 지윤미 최미자
최윤선 최윤화 최재욱 이수정 최형경 노진래 하현일 하현철 최성애 한완식 임정자
허정호 홍복선 홍소형

감사헌금

김 극 김영란 김정완 김태정 김향자 나영란 박병구 김인순 박재영 이현정 백성래
서담이 신기호 신민철 신의선 김민경 신형선 윤선호 이상도 장동열 최윤주 조경자
최윤희 무명1

생일감사헌금

신영신

녹색꿈헌금

구혜린 김재홍 이영하 최가윤 무명1

예배 및 모임

예배	시간	장소	예배	시간	장소
유아부예배	10:50	유아부실	1부예배	09:30	대예배실
유치부예배	10:50	유치부실	2부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예배	10:50	교육관	성서학당	13:30	대예배실
중고등부예배	10:5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1:00	교육관
1청년부예배	13:30	유치부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일·월 쉽)
2청년부예배	13:30	청년회실			

교회소식

1. 선교회 : 오늘 오후에 선교회별 모임이 있습니다.
2. 바자회 : 여선교회에서 준비한 은퇴 여교역자 안식관 건축 후원을 위한 바자회가 다음 주일 예배 후 교회 마당에서 열립니다.
3. 계삭회 : 중구용산지방 남선교회 계삭회가 오늘 오후 4시 정동제일교회에서 있습니다.
4. 청파가을나들이 : 10월 20일 11시 불광동 팀수양관에서 야외예배가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부 예배는 교회에서 9시에 있음)
5. 신앙실천 : 참 좋은 가을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손바닥만한 작은 세상만 보며 살지 말고 넓고 아름다운 세상을 눈에 많이 담으며 사십시오.

*떡, 커피 대접 : 최윤희 권사님 가족

	설교본문	설교	기도	성경봉독	인도
다음주	히 5:11~14	1부 김기석	공동기도	인도자	이재훈
		2부 김기석	김기석	이재삼	이범석
9월	1부 영접위원	김정우	헌금위원	이부용	
	2부 영접위원	곽권희 임주빈	한성건 최현옥 최승주 허희라		
	2부 헌금위원	안종일 박미영			
식당봉사	오늘	이오복 강금연 박운숙 김선영	안정숙 허신열	조장형 황현성	
	다음주	백혜숙 권현숙 서미경 장현희	강희석 김진선	박명제 김재환	
설거지봉사	5여선교회 (오늘) 청년부 (다음주) 커피봉사 4여선교회				

※ 교인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안내위원이나 목회자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 교회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